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새만금 비산먼지 관련 시공사 회의 개최

부안군은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새만금 사업지구 시공사 회의'를 새만금 사업지구 시공사 6개소 현장소장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환경과에서 지난 2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계절인 만큼 미세먼지와 더불어새만금 사업지구 내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한 비산먼지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비산먼지 저감대책 및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부안군은 시공사에 계절풍 등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고압살수기 운영 확대, 토사 운송차량 저속운행, 조사료 조기 식재,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 미세먼지 비산저감장치 발령 시 공사시간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13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13개 작은도서관은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5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집콕 중인 당신, 작은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주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집 밖 생활이 축소된 요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과일청 만들기 키트와 도서관 주간 동안 읽으면 좋은 책 5권을 선정해 제공한다.

행사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도서관의 도서 대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 한해서 4월 12일부터 정읍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해당 도서관에 방문해 과일청 만들기 키트와 신청자 맞춤 도서 5권을 수령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개발전략 탄력

장기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회... 친환경 농식품 생산, 친환경에너지 산업 등

고창군이 '친환경 농생명문화의 스마트한 확장'을 핵심으로 한 기회의 땅으로 변모한다.

고창군이 25일 오전 고창군 10년을 이룰 미래 청사진을 위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2021~2030)'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앞서 군은 지난해 3월부터 군민토론회 4차례, 중간보고회 2차례, 관련부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진행해 왔다.

계획은 3대 목표(풍요로운 일터, 관광기반의 놀터, 더불어 살아가는 삶터)가 제시됐고, 이를 위한 6대 부문, 15개 세부전략, 143개 세부과제로 실행력 있게 짜였다.

농생명식품산업의 경우 '저탄소', '친환경' 농식품 생산에 역량이 집중된다. 스마트팜 등 기후변화 대응형 농업기반 마련과 특용작물 개발이 진행된다. 특히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HMR(가정간편식), 구독경제, 라방 등 수요응답형 농산물 유통체계의 지역화 방안 등도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경제 부문에선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RE100산단조성,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과 농촌형 MICE관광산업, 레포츠산업을 활성화 하면서 산업구조를 다각화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 남기찬 책임연구위원은 "식품자원이 주산지인 고창 농수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고창군이 지난 25일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2021~2030)'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생명식품기업의 지속적 기업유치 전략을 통한 '고창군 주력산업 발전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해안사대를 이끄는 생태 체험 거점실현(생물권학습벨트, 연안항만 조성 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생태가치 제고(문수산 생태공간 재창조 사업 등)', '온고지신을 실천하는 역사문화도시(고인돌 단지조성, 마한역사유적지 유네스코 등재, 마을호텔 기반조성 등)', '노을대교·서해안철도 등 광역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됐다.

10여년 만에 수립하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다가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올해부터 추진 가능한 사업은 고창군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대선공약 반영을 비롯해 중앙부처·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개발전략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이자 정책 나침반이 될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군민이 행복하고 고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우팜테이블 입주하는 가뭄의 단비"

고창군 11개 여성단체 회장단, 일자리 창출 기업 일반산단 희망

고창군 11개 여성단체 회장단이 고창 일반산업단지 동우팜테이블 입주와 관련,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바란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는 개별·연합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며 "현재 고창군은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총인구 5만4,529명 중에 여자가 2만 7,565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여자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자들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집에서 집안일만 한다던가, 농사일만 하는 등 여자들의 활동폭이 좁았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양성평등을 외치고 여성친화도시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여자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또한 여자들은 결혼하면 출산과 육아가 노동에 얽매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어 또 하나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고수 일반산업단지 내 1000여명의 일자리를 창

출하는 동우팜테이블이라는 중소기업이 입주한다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에 여성들은 나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고수산업단지에 동우팜테이블이 입주하면 악취, 폐수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생활이 어렵고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타이틀에 금이 갈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의 좋은 성과가 있다면 그에 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해 발전하는 고창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11개 여성단체 회장단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근무시간 동안 육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춘 기업유치, 지역 농산물 소비수익창출, 지방세외 수입 증대, 화물운송물류확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의 입주, 입주한 기업이 고창 군민의 미래 먹거리 미래산업단지를 성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전북 경찰청등 연계기관 및 관련 부서 담당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쌍화차집 환경개선 추진

업소당 최대 500만원 지원 29일~4월 2일까지 신청·접수

정읍시가 정읍 쌍화차를 지역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정읍 쌍화차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노후한 간판과 조명 교체 등 소규모 환경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정읍 쌍화차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쌍화차집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 찻집으로 쌍화차를 주메뉴로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한 점포의 경우 건물주의 사업추진 동의서가 필요하며, 2019년 주민 주도형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인 환경개선 사업비를 기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총 30개소에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정읍시청 지역경제과(☎539-560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의 오향 중 미향인 정읍 쌍화차를 지역 대표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외부에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서, 신학기 성범죄 예방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고창경찰서(서장 김현익)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최근 자유중학교에서 신학기를 맞아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한 신학기 성범죄 근절 분위기 정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성폭력 담당 경찰관, 교사가 함께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신학기에 접어들어 코로나 사태가 일부 진정되면서 등교수업이 확대돼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고 있으나 학교 내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창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보유 중인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취약요소를 선별 점검했다. 김현익 고창경찰서장은 "불법 촬영된 영상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확산 돼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성범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본격

부안군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갔다고 25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안군, 전라북도 경찰청,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제8088부대 1대대, 스마트도시협회 등 연계기관 및 관련 부서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도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부안군에서 영

상과 정보를 경찰, 소방, 재난관리, 군부대에 실시간으로 제공, 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을 가능하게 해 도시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와의 이미 적용망이 구축이 완료돼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서비스를 제공, 침입·훈련 상황 발생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군부대 상황실에 실시간 현장 CCTV영상을 공유해 신속한 현장 상황 파악 및 현장 대처 등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